



엔디컷국제대학 개원 선포식 모습과 솔인터네셔널 스쿨(SICA) 건물<오른쪽 사진>

‘선진 커리큘럼’ 우선 도입.. 靑 일류대학 눈앞에

 **우송대학교**

학과개편 단행 엔디컷국제대학 개원
프랑스 대표 외식조리학교 공동연계
25명선발 교육... 학위 중복수여 가능

혁신적 지도 시스템 토론방식 눈길
솔인터네셔널 스쿨 해외취업 ‘전인’
AACSB 해외 프로그램상 수상도

우송대(총장 존 엔디컷)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목표로 혁신적인 학과개편을 단행한 새로운 엔디컷 국제대학을 개원했다.

엔디컷국제대학은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의 AACSB 인증획득과 폴 보퀴즈 월드얼라이언스 멤버 선정 등 우송대 글로벌 교육에 공헌한 존 엔디컷 총장의 교육이념을 이어받아 아시아 최고의 국제대학을 목표로 설립됐다.

엔디컷국제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재학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스스로가 혁신적 커리큘럼으로 학과를 개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대표적인 성과인 프랑스 대표외식조리대학인 폴 보퀴즈 공동학위과정 개설은 국내

에서 우송대가 유일하다. 우송대는 호텔외식조리대학 및 솔 인터네셔널 스쿨 조리관련 전공 2학년을 대상으로 50명(올해는 25명)을 선발해 일정기간 영어 집중교육 후, 3년간 프랑스 현지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해 졸업하면 양 대학의 학위를 모두 수여한다. 비싼 비용을 들여 프랑스로 유학가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프랑스 요리를 배워 세계적인 요리사로 성장할 수 있게 돼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국가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송대가 국제화에 역점을 두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7년부터다. 당시 존 엔디컷 총장을 초빙하면서 글로벌·특성화 교육과정으로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글로벌 명문 대학을 목표로 삼아왔다.

이후 우송대는 2007년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을 설립하면서 유학 갈 필요가 없을 정도의 글로벌 교육환경을 구축했다. 40여 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과 생활하는 다문화 교육환경, 해외 명문대 출신의 교수진, 100% 영어강의, 토론식 선진 커리큘럼, 해외 유수의 대학과의 복수 학위제 운영 등 혁신적인 글로벌 교육 시스템을 완성해왔다.

그 결과, 2014년 세계 상위 5% 우수 대학만이 보유한 AACSB(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International: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 인증을 세계 최단 기간에 획득했으며, 지난해 AACSB로부터 올해의 혁신프로그램상 (Innovations that Inspire)을 수상하면서 아시아 최고의 국제경영대

학으로 인정받았다.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의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2015년에는 조리, 호텔, 철도, 의료서비스경영, 비즈니스, 미디어 영상, 글로벌외식창업의 특성화분야로 확장시켜 해외취업이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100% 영어로 강의하는 솔 인터네셔널 스쿨(Sol International School-SIS)을 신설했다.

김흥기 엔디컷국제대학장은 “엔디컷국제대학이 아시아 최고의 국제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 36개 대학으로 구성된 세계국제관계대학(원)연합의 멤버가 되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전 교직원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